

『東醫寶鑑』處方の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 II

백진웅, 이병욱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Extended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al formula analyzing composition on *Donguibogam* formula II

Jin-Ung Baek, Byung-Wook Lee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al formulas by comparing with formulas on *Donguibogam*(東醫寶鑑), focusing on their composition.

Methods :

1. We analyzed the composition of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which are mentioned o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focusing on their composition.
2. We analyzed the composition of formulas on *Donguibogam*(東醫寶鑑) comparing with 24 formulas for So-Eum type, 17 formulas for So-Yang type, 24 formulas for Tae-Eum type, 2 formulas for Tae-Yang type.

Results & Conclusions :

1. We finally selected 14 formulas and its effect as similar formulas with Bojungyikgi-tang, Insamjinpi-tang, Cheongunggyeji-tang, Palmulgunja-tang, Hwanggigyejibuja-tang, Hwanggigyeji-tang for So-Eum type.
2. We finally selected 4 formulas and its effect as similar formulas with Dokwaljihwang-tang, Sukjihwanggosam-tang for So-Yang type.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Extended indications,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I. 序論

필자는 四象方과 같거나 유사한 약재 배합으로 處方이 구성되어 있는 『東醫寶鑑』 수록 處方을 발췌하여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東醫寶鑑』 處方の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¹⁾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 선

행 연구에서 확정된 방법을 이용해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 전체 즉 少陰人 處方 24개, 少陽人 處方 17개, 太陰人 處方 24개, 太陽人 處方 2개²⁾의 적응증 확장을 시도한 연구다.

그런데 본 연구는 “특정 四象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용량 비율이 70%가 넘는 『東醫寶鑑』 處方이라고 해서 그 處方の 적응증을 해당 四象方の 적응증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거나 “한 處方 내에 포함된 개별 약재의 효능과 약재들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본 연

접수 ▶ 2013년 10월 24일 수정 ▶ 2013년 10월 24일 채택 ▶ 2013년 11월 25일 교신저자 ▶ 이병욱,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Tel : 051-510-8451 E-mail : omis@naver.com

1)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 處方の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6(3). 2013. pp.99-109.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71-681, 698-705, 714-720, 723-724.

구의 의도는 “임상에서 『東醫壽世保元』에 기재되지 않은 증상에 四象方을 활용할 때 지금까지는 임상의 개인의 경험에 주로 의존해왔는데, 이와 달리 『東醫寶鑑』이라는 문헌에 근거해 四象方 적응증 확장을 시도함”이고, 필자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한 바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수행의 의의와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해 더 나은 후속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연구 방법과 내용³⁾

1) 『東醫寶鑑』의 原文은 內醫院 元刻本에 의거하여 1814년에 전주 完營에서 修訂 및 補完한 完營重刊本을 底本으로 한 『新增補對譯 東醫寶鑑』⁴⁾에서 인용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 原文은 『改訂增補 四象醫學』⁵⁾에 수록된 辛丑本을 底本으로 삼았다. 전국 한의과대학 四象醫學教室에서 공통으로 출간한 교재이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少陰人 處方 24개, 少陽人 處方 17개, 太陰人 處方 24개, 太陽人 處方 2개를 대상으로 각 處方 구성 약재를 파악한 후, 특정 四象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용량이 處方 전체 용량의 70% 이상이 되는 『東醫寶鑑』 處方을 해당 四象方の 유사 處方으로 보고 선별 및 분석하였다.

4) 『東醫寶鑑』에서 선별한 處方の 적응증을 분석하여 이를 해당 四象方の 적응 가능증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헌에 근거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을 시도하였다.

5) 生薑 3片은 1錢, 大棗 2枚는 1錢, 葱白 1莖은 0.333

錢이라고 보는 등 명확하게 무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주 나오는 약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豬腎 1개’처럼 흔히 사용되지는 않으면서 그 무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약재를 포함한 處方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1,166개의 『東醫寶鑑』 處方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2,787개의 處方만이 활용되었다⁶⁾.

2. 『東醫寶鑑』에서 四象方 유사 處方 선별 및 考察

1) 少陰人 24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및 考察

(1) 少陰人 24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少陰人 24개 處方 중 특정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용량이 處方 전체 용량의 70%가 넘는 『東醫寶鑑』 處方은 모두 13개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유사 處方으로 人蔘黃芪湯이 선별되었고, 少陰人 人蔘陳皮湯의 유사 處方으로 人蔘膏와 單人蔘湯의 2개 處方이 선별되었고, 少陰人 川芎桂枝湯의 유사 處方으로 陰旦湯과 陽旦湯의 2개 處方이 선별되었다. 또 少陰人 八物君子湯의 유사 處方으로 蔘朮飲 1, 蔘朮飲 2⁷⁾, 補虛湯, 蔘歸養榮湯, 蔘氏健中湯, 人蔘黃芪湯, 十全大補湯의 7개 處方이 선별되었다. 또 少陰人 黃芪桂枝附子湯의 유사 處方으로 五物湯 1개 處方이, 少陰人 黃芪桂枝湯의 유사 處方으로 역시 五物湯 1개 處方이 선별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少陰人 處方과 유사한 處方은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6개의 少陰人 處方の 약재 구성과 主治 및 效能, 『東醫寶鑑』에서 선별된 13개의 유사 處方の 약재 구성과 主治 및 效能, 少陰人 處方과 『東醫寶鑑』 處方の 유사성을 %로 나타내어 표로 정리하면 각각 표 1, 표 2, 표 3과 같다.

3)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인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들의 適應證 확장 연구를 위해 『東醫寶鑑』(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와 유사하다. 그래서 일부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편의상 본 논문에도 기재한다.

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譯.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6) 加減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處方 등을 계산하면 『東醫寶鑑』 處方の 개수는 4,014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방만 입력되었기에 3,953개의 處方 개수가 나왔다.

7) 이름이 같은 2種의 蔘朮飲이 있는데, 편의상 각각 蔘朮飲 1, 蔘朮飲 2라고 命名하였다.

표 1. 6개의 少陰人 處方 구성과 主治 및 效能⁸⁾

| 處方명 | 약재 구성 |
|------------------------|--|
| 補中益氣湯 ⁹⁾ | 人蔘 黃芪 各3錢 炙甘草 白朮 當歸 陳皮 生薑 大棗 各1錢 藿香 蘇葉 各3分 發熱惡寒而 有汗(亡陽初證) |
| 人蔘陳皮湯 ¹⁰⁾ | 人蔘 1兩 生薑 大棗 砂仁 陳皮 各1錢 陰毒慢風 |
| 川芎桂枝湯 ¹¹⁾ | 桂枝 3錢 白芍藥 2錢 川芎 蒼朮 陳皮 炙甘草 生薑 大棗 各1錢 ① 發熱惡寒而 無汗 ② 其人如狂(腎陽困熱) |
| 八物君子湯 ¹²⁾ | 人蔘 2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炙甘草 生薑 大棗 各1錢 ① 其人如狂(腎陽困熱) ② 和解而 峻補之(外熱包裡冷而 毒氣重結於內 或 將有養虎遺患之弊의 경우 巴豆로 下利 後) ③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曠 傷寒 嘔多 雖有陽明 不可攻 胃家實 不大便 ④ 太陽陽明病 自汗不出 脾不弱 ⑤ 胃家實病 不更衣 發狂證 ⑥ 外感病六七日 不得汗解而死 |
| 黃芪桂枝附子湯 ¹³⁾ | 桂枝 黃芪 各3錢 白芍藥 2錢 炙甘草 當歸 炮附子 各1錢 汗多亡陽證 |
| 黃芪桂枝湯 ¹⁴⁾ | 桂枝 3錢 白芍藥 黃芪 各2錢 白何首烏 當歸 炙甘草 生薑 大棗 各1錢 ① 發熱惡寒而 有汗(亡陽初證) ② 其人如狂(腎陽困熱) ③ 外感病六七日 不得汗解而死 |

표 2. 『東醫寶鑑』에서 선별된 13개의 유사 處方의 약재 구성과 主治 및 效能

| 處方명 | 약재 구성과 주치 및 효능 |
|-------------------------|---|
| 人蔘黃芪湯 ¹⁵⁾¹⁶⁾ | 人蔘 2錢 黃芪 白朮 陳皮 生薑 大棗 各一錢 當歸 白茯苓 甘草 各五分 治虛損少氣 |
| 人蔘膏 ¹⁷⁾ | 人蔘 一斤 治元氣虛乏 精神短少 言語不接 |
| 單人蔘湯 ¹⁸⁾ | 人蔘 一兩 治氣虛喘急 |

8) 主治와 效能은 泛論을 제외한 본문 전체에서 발췌하였다. 泛論은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경우를 모아 놓은 경우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7.
- 1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80.
- 1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51, 678.
-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57, 678. pp.651-654.
- 1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54. pp.678-679.
- 1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51, 657, 678.
- 15) 『東醫寶鑑』에는 處方 구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3개의 黃芪桂枝湯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2개의 處方 구성을 가진 한 개만 해당한다.
- 16)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258.
- 17)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257.
- 18)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328.
- 19)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089.
- 20)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088.
- 21)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491.
- 2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689.
- 23) 『東醫寶鑑』에는 處方 구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2개의 蔘芪養榮湯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2개의 處方 구성을 가진 한 개만 해당한다.
- 2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058.
- 25)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248.
- 26) 『東醫寶鑑』에는 處方 구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3개의 人蔘黃芪湯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2개의 處方 구성을 가진 한 개만 해당한다.
- 27)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258.
- 28)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249.
- 29)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671.
- 30)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051.

| | |
|-------------------------|---|
| 陰旦湯 ¹⁹⁾ | 桂枝二錢 黃芩 乾薑 各一錢半 芍藥 甘草 大棗 各一錢 治陰證傷寒 身大熱欲近衣 |
| 陽旦湯 ²⁰⁾ | 桂枝 芍藥 各三錢 黃芩 二錢 甘草 生薑 大棗 各一錢 治傷寒陽證 身大熱 反不欲近衣 |
| 參朮飲 ¹²¹⁾ | 川芎 陳皮 人參 熟地黃 白朮 白芍藥 半夏 當歸 甘草 生薑 大棗 各一錢 治孕婦轉胞尿閉 |
| 補虛湯 ²²⁾ | 人參 白朮 各一錢半 當歸 川芎 黃芪 陳皮 各一錢 甘草 七分 產後當大補氣血 爲先 |
| 參歸養榮湯 ²³⁾²⁴⁾ | 人參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白朮 白茯苓 陳皮 生薑 大棗 各一錢 甘草五分 治風痰瘧 陰瘧 |
| 參芪健中湯 ²⁵⁾ | 當歸身一錢半 人參 黃芪 白朮 陳皮 白茯苓 白芍藥 生乾地黃酒炒 生薑 大棗 各一錢 甘草五分 五味子三分 治虛損少氣 四肢倦怠 飲食少進 |
| 人參黃芪湯 ²⁶⁾²⁷⁾ | 人參二錢 黃芪 白朮 陳皮 生薑 大棗 各一錢 當歸 白茯苓 甘草灸 各五分 治虛損少氣 |
| 十全大補湯 ²⁸⁾ |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黃芪 肉桂 生薑 大棗 各一錢 治虛勞 氣血兩虛 能調和陰陽 又治虛勞自汗 |
| 參朮飲 ²²⁹⁾ | 川芎 陳皮 人參 熟地黃 白朮 白芍藥 半夏 當歸 生薑 各一錢 甘草 五分 治孕婦轉脬 小便不通 |
| 五物湯 ³⁰⁾ | 黃芪 桂枝 白芍藥 各三錢 生薑 大棗 各一錢 治血痺 |

표 3. 少陰人 處方과 『東醫寶鑑』 處方の 유사성

| 四象方名 | 『東醫寶鑑』 處方名 | 유사성 (%) |
|---------|------------|---------|
| 補中益氣湯 | 人參黃芪湯 | 74.56 |
| 人參陳皮湯 | 人參膏 | 71.43 |
| | 單人參湯 | 71.43 |
| 川芎桂枝湯 | 陰旦湯 | 72.73 |
| | 陽旦湯 | 72.73 |
| 八物君子湯 | 參朮飲 1 | 81.82 |
| | 補虛湯 | 79.83 |
| | 參歸養榮湯 | 77.92 |
| | 參芪健中湯 | 75.46 |
| | 人參黃芪湯 | 75.40 |
| | 十全大補湯 | 72.73 |
| 黃芪桂枝附子湯 | 參朮飲 2 | 70.33 |
| | 五物湯 | 71.43 |
| 黃芪桂枝湯 | 五物湯 | 73.38 |

(2) 考察

표 3에 수록된 『東醫寶鑑』 處方은 각각 그 왼쪽에 수록된 少陰人 處方의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 포함하고 있는 處方이다. 즉 人參黃芪湯과 人參陳皮湯은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4.56% 포함하고 있고, 人參膏와 單人參湯은 少陰人 人參陳皮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1.43% 포함하고 있고, 陰旦湯과 陽旦湯은 少

陰人 川芎桂枝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2.73% 포함하고 있다. 또 參朮飲 1, 補虛湯, 參歸養榮湯, 參芪健中湯, 人參黃芪湯, 十全大補湯, 參朮飲 2은 少陰人 八物君子湯 구성 약재를 각각 전체 용량의 81.82%, 79.83%, 77.92%, 75.46%, 75.40%, 72.73%, 70.33%를 포함하고 있다. 또 五物湯은 少陰人 黃芪桂枝附子湯 구성 약재를 71.43%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少陰人 黃芪桂枝湯 구성 약재도 73.88%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 “『東醫寶鑑』 處方의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³¹⁾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 포함한 『東醫寶鑑』 處方을 선별할 때,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모태가 된 後世方 補中益氣湯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별되지 못했었고, 이에 70% 기준이 충분히 엄격한 기준임을 확인했었다. 그러므로 표 3에 수록된 서로 관련된 四象方과 『東醫寶鑑』 處方은 매우 유사한 處方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각 『東醫寶鑑』 處方의 적응증을 해당 四象方 적응 가능증으로 제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1)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 處方의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전환학회지. 26(3). 2013. pp.99-109.

표 4. 『東醫寶鑑』에서 발췌한 少陰人 處方 적응 가능증

| 四象方名 | 『東醫寶鑑』에서 발췌한 적응 가능증 |
|---------|---|
| 補中益氣湯 | 治虛損少氣 |
| 人蔘陳皮湯 | ① 治元氣虛乏 精神短少 言語不接 ② 治氣虛喘急 |
| 川芎桂枝湯 | ① 治陰證傷寒 身大熱欲近衣 ② 治傷寒陽證 身大熱 反不欲近衣 |
| 八物君子湯 | ① 治孕婦轉胞尿閉 ② 產後當大補氣血 爲先 ③ 治風痰瘕 陰瘕 ④ 治虛損少氣 四肢倦怠 飲食少進 ⑤ 治虛損少氣 ⑥ 治虛勞 氣血兩虛 能調和陰陽 又治虛勞自汗 ⑦ 治孕婦轉脬 小便不通 |
| 黃芪桂枝附子湯 | 治血痺 |
| 黃芪桂枝湯 | 治血痺 |

표 4에서 각각의 少陰人 處方の 적응 가능증으로 제시된 病證들은 그야말로 ‘가능증’으로 해당 處方 적응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약제의 효능도 살펴야 하고, 약물 상호간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병증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는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少陽人 17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및 考察

(1) 少陽人 17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少陽人 17개 處方 중 특정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제 용량이 處方 전체 용량의 70%가 넘는 『東醫寶鑑』 處方은 모두 3개다. 少陽人 獨活地黃湯의 유사 處方으로 六味地黃元(丸)과 八味丸과 腎氣丸의 3개 處方이 선별되었고, 少陽人 熟地黃苦蔘湯의 유사 處方으로 六味地黃元(丸) 1개 處方이 선별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少陽人 處方과 유사한 處方은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2개의 少陽人 處方の 약제 구성과 主治 및 效能, 『東醫寶鑑』에서 선별된 3개의 유사 處方の 약제 구성과 主治 및 效能, 少陽人 處方과 『東醫寶鑑』 處方の 유사성을 %로 나타내어 표로 정리하면 각각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2개의 少陽人 處方 구성과 主治 및 效能

| 處方명 | 약제 구성 |
|-----------------------|--|
| 獨活地黃湯 ³²⁾ | 熟地黃 4錢 山茱萸 2錢 茯苓 澤瀉 各1錢 5分 牡丹皮 獨活 防風 各1錢 ① 治食滯痞滿 ② 恒有滯證痞滿 間有腹痛 腰痛 又有口眼喎斜初證 ③ 陰虛午熱 飲水 背寒而嘔 |
| 熟地黃苦蔘湯 ³³⁾ | 熟地黃 4錢 山茱萸 2錢 白茯苓 澤瀉 各1錢半 知母 黃栢 苦蔘 各1錢 治下消 |

표 6. 『東醫寶鑑』에서 선별된 5개의 유사 處方の 약제 구성과 主治 및 效能

| 處方명 | 약제 구성과 主治 및 效能 |
|-------------------------|---|
| 腎氣丸 ³⁴⁾ | 熟地黃八兩 山藥 山茱萸 五味子 各四兩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三兩 治虛勞腎損 |
| 六味地黃元(丸) ³⁵⁾ | 熟地黃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三兩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 發熱 五藏齊損 瘦弱 虛煩 骨蒸痿弱 脉沈而虛 |
| 八味丸 ³⁶⁾ | 熟地黃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牡丹皮 白茯苓 澤瀉 各三兩 肉桂 附子炮 各一兩 治命門火不足 陽虛 |

표 7. 少陽人 處方과 『東醫寶鑑』 處方の 유사성

| 四象方名 | 『東醫寶鑑』 處方名 | 유사성(%) |
|--------|------------|--------|
| 獨活地黃湯 | 腎氣丸 | 70.40 |
| | 六味地黃元(丸) | 80.33 |
| | 八味丸 | 75.00 |
| 熟地黃苦蔘湯 | 六味地黃元(丸) | 72.00 |

(2) 考察

표 7에 수록된 『東醫寶鑑』 處方은 각각 그 왼쪽에 수록된 少陽人 處方の 구성 약제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 포함하고 있는 處方이다. 즉 腎氣丸, 六味地黃元(丸), 八味丸은 少陽人 獨活地黃湯 구성 약제를 각각 전체 용량의 70.40%, 80.33%, 75% 포함하고 있다. 또 六味地黃元(丸)은 동시에 少陽人 熟地黃苦蔘湯 구성 약제를 전체 용량의 72.00%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 7에 수록된 서로 관련된 四象方과 『東醫寶鑑』 處方은 매우 유사한 處方이라 할 수 있고,

3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02.
3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03.
3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1255.
35)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420, 1254.
36)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420.

따라서 각 『東醫寶鑑』處方の 적응증을 해당 四象方 적응 가능증으로 제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東醫寶鑑』에서 발췌한 少陽人 處方 적응 가능증

| 四象方名 | 『東醫寶鑑』에서 발췌한 적응 가능증 |
|--------|--|
| 獨活地黃湯 | ① 治虛勞腎損 ②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 發熱 五藏齊損 瘦弱 虛煩 骨蒸痿弱 脉沈而虛 ③ 治命門火不足 陽虛 |
| 熟地黃苦參湯 |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 發熱 五藏齊損 瘦弱 虛煩 骨蒸痿弱 脉沈而虛 |

표 8에서 각각의 少陽人 處方の 적응 가능증으로 제시된 病證들은 그야말로 ‘가능증’으로 해당 處方 적응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약재의 효능도 살펴야 하고, 약물 상호간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병증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는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太陰人 24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및 분석

太陰人 24개 處方 중 특정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 용량이 處方 전체 용량의 70%가 넘는 『東醫寶鑑』處方은 단 한 개도 없다.

4) 太陽人 2개 處方과 유사 處方 선별 및 분석

太陽人 2개 處方 중 특정 處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의 용량이 處方 전체 용량의 70%가 넘는 『東醫寶鑑』處方은 단 한 개도 없다.

5) 종합 考察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 전체 즉 少陰人 處方 24개, 少陽人 處方 17개, 太陰人 處方 24개, 太陽人 處方 2개의 적응증 확장을 『東醫寶鑑』 수록 處方과의 용량 비교 분석을 통해 시도한 결과, 유사성 7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東醫寶鑑』處方은 표 3의 少陰人 處方 6개와 유사한 13개 處方, 그리고 표 7의 少陽人 處方 2개와 유사한 3개

處方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결과, 少陰人 處方 6개의 적응 가능증으로 표 4의 13개 증상과 少陽人 處方 2개의 적응 가능증으로 표 8의 4개 증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앞에서 필자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모태가 된 後世方 補中益氣湯도 선별되지 않을 정도로도 용량 비중의 70% 유사성은 그 기준이 충분히 엄격하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용량 비중의 유사성이 70% 이상인 두 處方을 서로 유사한 處方으로 보는 기준을 80%나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그런데 이렇게 유사성 기준을 높일수록 유사 處方은 줄어들다. 기준을 80%로만 올려도 소음인 八物君子湯과 參朮飲 1, 少陽人 獨活地黃湯과 六味地黃元(丸)만 유사 處方으로 선별된다. 즉 일부 연구자가 적절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70%의 기준을 적용해도 67개 四象方 중에서 단 8개 四象方의 적응 가능증만을 전체 『東醫寶鑑』處方 분석을 통해 선별해낼 수 있고, 만약 기준을 80% 올릴 경우 단 2개 四象方의 적응 가능증만을 선별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8개 四象方의 17개 적응 가능증을 새롭게 제시한 성과와는 별개로 본 연구는 이제마가 四象方을 기존 處方과 다르게 매우 독창성으로 創方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III. 結論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四象方 전체인 67개를 대상으로, 특정 四象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의 용량이 전체 處方 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東醫寶鑑』 수록 處方을 발췌 및 분석함으로써 해당 四象方 적응증을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處方으로는 人參黃芪湯을, 少陰人 人參陳皮湯의 경우는 人參膏와 單人參湯의 2개 處方을, 少陰人 川芎桂枝湯의 경우에는 陰旦湯과 陽旦湯의 2개 處方을, 少陰人 八物君子湯의 경우에는 參朮飲 1, 參朮飲 2, 補虛湯, 參歸養榮湯, 參芪健中湯, 人參黃芪

37) 기준을 결정하는 범위 자체를 바꿔 處方 구성 약재 중 君藥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본 연구 범위에 맞게 전체 약재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湯, 十全大補湯의 7개 處方을, 少陰人 黃芪桂枝附子湯의 경우에는 五物湯 1개 處方을, 少陰人 黃芪桂枝湯의 경우에는 역시 五物湯 1개 處方을 선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東醫寶鑑』 處方の 적응증을 해당 四象方 적응가능증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2. 少陽人 獨活地黃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 處方으로는 六味地黃元(丸)과 八味丸과 腎氣丸의 3개 處方을, 少陽人 熟地黃苦蔘湯의 경우에는 六味地黃元(丸)의 1개 處方을 선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東醫寶鑑』 處方の 적응증을 해당 四象方 적응가능증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3. 太陰人 四象方과 太陽人 四象方の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 處方은 단 한 개도 없었다.
4. 이제마 四象方을 기존 處方과 다르게 매우 독창성으로 創方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 處方の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013 ; 26(3) : 99-109.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 집문당. 2011 : 657, 702, 703. 651-654, 671-681, 698-705, 714-720, 723-724.
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12 : 257, 258, 420, 491, 1058, 1088, 1089, 1248, 1249, 1254, 1255, 1328, 1671, 1689.